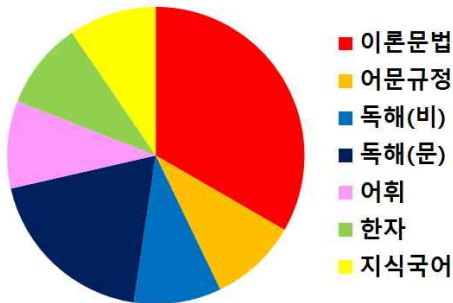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2018 서울시 7급 국어 추가채용 해설



◆ 이론문법 7문항

1(형태론-단어형성) 2, 6(음운론-음운변동) 7(높임과 예절)
14(형태론-본용언 보조용언) 16(고전문법) 20(통사론-어미)

◆ 어문규정 2문항 3(로마자표기법) 13(띄어쓰기)

◆ 독해(비문학) 2문항
10(내용확인) 15(전개방식)

◆ 독해(문학) 4문항

4(낮선 현대소설) 9(낮선 현대시) 11(고전산문) 17(고전운문)

◆ 어휘 2문항 8(다의어) 19(고유어)

◆ 한자 2문항 11(성어) 18(한자어)

◆ 지식국어 2문항 5(향가의 형식) 12(유통-방각본)

문 1. ‘살짝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같은 것은?1)

- ① 덮밥 ② 얼룩소
③ 딱딱새 ④ 섞어찌개

문 2. <보기> 중 음운변동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2)

<보기>	
ㄱ. 발전	ㄴ. 국화
ㄷ. 솔잎	ㄹ. 독립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exists$

문 3.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 ① 신리: Sin-li
- ② 일직면: Iljik-myeon
- ③ 사직로: Sajik-ro
- ④ 진량읍: Jillyang-eup

문 4. <보기> 속 화자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4)

<보기>

넓은 도로 위로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고 간발의 차이로 나는 그를 피해 비켜섰다. 다갈색 바지에 흰 먼 셔츠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짐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썩,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버스가 당도했고 나는 버스를 탔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마침 도착한 버스에 탔다. 그게 다였다.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때민 것도 아닌데…… 나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툭툭 털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

- 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
- ② 지나간 일이라도 시비는 가려야 한다.
- ③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 ④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문 5.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의 향가 작품이 아닌 것은?⁵⁾

<보기>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하심을 알 것입니다.

- **중략** -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 ① 원왕생가 ② 처용가
③ 찬기파랑가 ④ 혜성가

문 6.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6)

- ① 손난로
- ② 불놀이
- ③ 찰나
- ④ 강릉

문 7.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7)

- ①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 ②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 ③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 ④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문 8. <보기>의 내용 중 밑줄 친 ‘쓰다’의 쓰임이 다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8)

<보기>

ㄱ.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ㄷ. 공원묘지에 묘를 쓰다.
 ㄹ.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ㅁ. 입맛이 써서 맛있는 게 없다.
 ㅂ.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 ① ㄱ - ㄷ ② ㄴ - ㅁ ③ ㄷ - ㄹ ④ ㄹ - ㅂ

문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9)

<보기>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 ① 구체적 시공간을 제시하여 역사적 배경을 환기한다.
- ②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숨 막히던 상황이다.
- ③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 ④ 수심은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한다.

문 10.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은?10)

<보기>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라 부른다.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위태롭다.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수입이 장기적으로 불안해지는 추세와 함께 이른바 마비 현상이라 부르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불안과 욕구라는 양극단 중 어느 한쪽도 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심적인 경련과 리듬 상실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모든 정상적인 소비 현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는 만성 자제력 상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향후 몇 년 안에 달라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 다비트 보스하르트, 「소비의 미래」

- ① 철수 -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야.
- ② 영희 - 오늘날은 소비의 위기 시대이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어.
- ③ 영수 -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 ④ 순희 -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

문 11. <보기>의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1)

<보기>

방의 넓이는 10홀, 남으로 외딴문 두 개 열렸다. 한낮의 해 쬔어, 밝고도 파사로워라.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갖 책 갖추었다. 쇠코잠방이로 넉넉하니, 탁문군(卓文君)의 짝일세. 차 반 사발 따르고, 향 한 대 피운다. 한가롭게 숨어 살며, 천지와 고금을 살핀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 말하면서, 누추하여 거처할 수 없다 하네. 내가 보기엔, 신선이 사는 곳이라, 마음 안온하고 몸 편안하니, 누추하다 뉘 말하는가.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몸과 명예 모두 썩는 것, 집이야 썩대로 엮은 거지만,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무슨 대수랴.

- ① 安分知足 ② 艱難辛苦 ③ 貧而無怨 ④ 簞食瓢飲

문 12. <보기>를 읽고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보기>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 그것을 종이로 찍어낸 소설책을 말한다. 주로 민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방각본 소설은 종이와 나무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고, 인구가 많아 독자의 수요가 많은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주로 간행되었다. 그 중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고 부른다.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

- ① 한 작품 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 ②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 ③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 ④ 분량이 긴 작품은 품과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 13.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13)

-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번 휴가에 발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문 14. 밑줄 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14)

-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 ②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 ③ 새 옷을 입어 보았다.
- ④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문 15.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15)

<보기>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빠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럼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럼 주택, 나아가 저럼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 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 ②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 ④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문 16.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16)

ㄱ.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의 8글자만 쓰였다.

ㄴ. 사잇소리에는 ‘ㅅ’과 ‘ㅌ’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ㄹ.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ㅁ. ‘ㅇ’을 순음 아래 이어쓰면 순경음이 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ㄹ, ㅁ

문 17. <보기>의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17)

<보기>

(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임이여,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이제 님을 어이 할까나

(나) 生死 길흔/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나는 가느다 말스도/묻다 니르고 가느긋고/어느 ㅁ술 이른 브락매/이에 더애 뜨러딜 ㄴㅁ/ㅎ든 가지라 나고/가논 곧 모드론더/아야 彌陀刹야 맛보올 나/道 닷가 기드리고다

- 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 ② 임과의 사별을 노래했다.
- ③ 승화, 초월 양상이 보인다.
- ④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문 18.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18)

<보기>

우리가 그 본성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을 불변의 것으로 고정화할 때, 우리는 옛날의 중국 여자의 전족처럼 살아 있는 것의 성장을 왜곡화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고사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 ① 課程－纏足－矮曲－苦死
- ② 過程－纏足－歪曲－枯死
- ③ 過程－填足－矮曲－枯死
- ④ 課程－填足－歪曲－苦死

문 19. 고유어에 대한 풀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9)

- ①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 ②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 열 마리를 쥔으로 엮은 것
- ③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 ④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문 20.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요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

- ① ‘-(으)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② ‘-더라도’는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 ③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 ④ ‘-(으)ㄴ들’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의문문이어야 한다.

1) ③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살짝곰보: 살짝(부사) + 곰보(명사)

* 살짝곰보: 약간 엷은 얼굴. 또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

딱딱새: 딱딱(부사) + 새(명사)

-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

* 딱딱새: '딱따구리'의 방언(함복)

[오답해설]

① 덮밥: 덮(은) + 밥

-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② 얼룩소: 얼룩(명사) + 소(명사)

-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

③ 섞어찌개: 섞어(동사 '섞다'의 연결형) + 찌개

- 연결어미가 생략되지 않았으므로 통사적 합성어

* 보통 용언과 용언의 연결에 연결어미를 사용하고 용언이 체언을 꾸밀 때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쓴다. '섞어찌개'는 특이한 구성이나 어미가 누락된 것은 아니므로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결어미가 있다고 하여 '섞어 찌다'가 접사 '-개'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섞어찌다'라는 용언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찌개'는 어원적으로 파생어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존재하는 접사 '-개'와 역할이 달라 지금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일어로 본다.

2) ③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 변동]

음운변동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축약, 탈락, 첨가' 중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음운 변동

교체	축약	탈락	첨가
특정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	두 음운 중에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형태소 합성될 때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ㄴ. 국화 (ㄱㅏㅓㅓㅓ/ㅎㅏ - 5개)

> 축약 > [구과] - (ㄱㅏㅓ/ㅋㅏ - 4개)

ㄷ. 솔잎 (ㅅㅏㅓㅓ/ㅣㅓㅓ - 5개)

> 'ㄴ' 첨가 후 유음화 > [솔립]-(ㅅㅏㅓㅓ/ㄴㅣㅓㅓ - 6개)

* 받침이 아닌 'ㅇ'은 음운이 아니다.

[오답해설]

ㄱ. 발전[발편]: 된소리되기

* 표준발음법 제26항 한자어에서, 'ㄷ'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ㄷ. 독립[동립]: 상호동화로 인한 비음화

3) ① [어문규정마스터 - 로마자표기법]

신리 Sin-li(X) → Sin-ri

- 신리는 [실리]로 발음되지만 '리'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ri'로 쓴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② 일직면 Iljik-myeon

[일찍면]으로 발음하지만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옳다.

③ 사직로: Sajik-ro

'길'을 가리키는 '로'는 'ro'라 쓴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새 주소 체계에서 '대로(大路)', '로(路)', '길'은 각각 'daero', 'ro', 'gil'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④ 진량읍: Jillyang-eup (O)

'진량읍'은 [질량읍]으로 발음되어 유음화를 반영한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4) ③ [독해(문학) - 현대 소설의 내용 이해]

화자(서술자)는 쓰러진 노인을 돕지 않고 차에 탔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에 대해 생각한다.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어적으로 자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함의화이다.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라며 적극적으로 함의화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인에게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거나 스스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싶은 방어적 심리이다.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문: 황정은, <웃는 남자>

[오답해설]

서술에 내재된 심리를 바탕으로 죄책감을 찾아내야지, 서술자(나)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그가 이기적이니 ①이라고 답하면 안 된다. 문제에서 묻은 것은 화자의 심리지 그의 성격에 대해 독자에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5) ② [독해(문학) - 지식국어]

<보기>에 제시된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충담사가 지은 10구체 향가인 '안민가(安民歌)'이다. 향가의 형식이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였으니 10구체의 향가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된다. <보기>는 중락을 통해 몇 구체인지 알 수 없게 해 놓았으나, 향가 중 8구체인 향가는 '처용가(處容歌)'와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밖에 없다는 것을 익혀 두었다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오답해설]

나머지 향가는 모두 10구체이다.

6) ①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 동화]

손난로[손날로]: '로'의 'ㄹ'의 영향으로 '난'의 'ㄴ'이 [ㄹ]로 변환 역행 동화이다.

[오답해설]

② 불놀이[불로리]: '불'의 'ㄹ'의 영향으로 '놀'의 'ㄴ'이 [ㄹ]로 변환 순행 동화이다.

③ 찰나[찰라]: '찰'의 'ㄷ'의 영향으로 '나'의 'ㄴ'이 'ㄷ' 변환 순행 동화이다.

④ 강릉[강능]: '강'의 'ㅇ'의 영향으로 '릉'의 'ㄹ'이 'ㄴ'으로 변환 순행 동화이다.

7) ① [이론 문법 - 높임과 예절]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X)

→ 부장님의 따님은 댁에 있으신가요?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법의 경우에는 '계시다'를 쓸 수 없다. 또한 '집'은 '댁'으로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해설]

②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O)

간접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주어와 관련된 대상'에는 '말씀, 생각, 소유물, 가족, 신체 부분' 등이 들어간다. '키'는 담임 선생님의 신체 일부이므로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크다'의 간접 높임인 '크시다'가 옳다.

③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O)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④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O)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우산'을 간접 높으려면 '있으시다'가 옳다.

8) ④ [어휘 - 다의어]

> 2015년 경찰 2차 중복 출제

> 2016년 국회직8급 중복 출제

다의 관계는 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의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는 의미 연관성이 없고 각각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ㄷ.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ㄴ.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쓰다3[동사]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 ㄴ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 ㄴ

[오답해설]

쓰다1[동사]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ㄱ

쓰다2[동사]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ㄴ

쓰다4[동사]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 ㄴ

쓰다6[형용사]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ㄴ

9) ③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2016년 국회직8급 중복 출제 지문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 아니라, 용당포를 건너던 사람들이다. 아이가 울면 모두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오답해설]

①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이 드러나 있다.

② 남북의 경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깊은 밤 몰래 월남하는 상황을 그렸다.

④ '수심(水深)'은 '물의 깊이'라는 뜻이다. 중의적으로 '수심(愁心)'의 뜻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10) ④ [독해(비문학) - 내용확인]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로 보아 대량소비는 오히려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③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마비 현상', '만성 자제력 상실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1) ②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한자성어]

허균의 산문 <누실명(陋室銘)>은 '가진 게 많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담고 있다. 따라서 '艱難辛苦(간난신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艱難辛苦(간난신고):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

艱(어려울 간) 難(어려울 난) 辛(매울 신) 苦(쓸 고)

[오답해설]

① 安分知足(안분지족):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安(편안 안) 分(나눌 분) 知(알 지) 足(발 족)

③ 貧而無怨(빈이무원): 가난해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음.

貧(가난할 빈) 而(말 이을 이) 無(없을 무) 怨(원망할 원)

④ 簞食瓢飲(단사표음):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簞(소쿠리 단) 食(먹이 사) 瓢(바가지 표) 飲(마실 음)

12) ② [독해(문학) - 지식국어]

방각본은 조선시대에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이다. 서울의 방간본은 상인들이 많이 모이던 중부를 중심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제시된 지문에서도 서울과 안성을 오가며 찍어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한 작품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③ 민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독자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 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익 산출이 중요했고 제작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④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 그것을 종이로 찍어낸 소설책이다. 따라서 분량이 긴 작품은 새길 것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13) ④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울 듯도 하다'는 의존 명사 '듯' 뒤에 조사 '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 용언 '듯하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용언 '오다'의 관형사형 '울'과 의존명사 '듯'은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한글맞춤법 제3절 제47항 해설보기: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도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다.

다만,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동사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먹은지(X) → 먹은V지

'지'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두 시간밖에'에서 시간은 띄어 쓰고(아라비아 숫자일 경우 붙이는 것 허용), 조사 '밖에'는 붙여 쓴다.

② 관계 없이(X) → 관계없이

'관계없이'는 하나의 부사로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관계없다' 역시 형용사로 등재되었다.

③ 발리 섬(X) → 발리섬 <2017년 개정>

한글맞춤법 제4장 제3절 제1항('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삭제로 이제 붙여 쓴다.

14) ① [이론 문법 - 형태론 - 본용언과 보조용언]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 2014년 국가직 9급 중복 선지

'들다'와 '가다'는 각각 의미가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본용언과 본용언이다.

[오답해설]

② '끝내지 못했다'의 '못하다'는 본용언 뒤에서 '-지 못하다'의 구성으로 쓰일 때는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간다. 동사 '끝낸다' 뒤에서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쓰였다.

③ '입어 보았다'의 '보았다'는 동사 뒤에서 '-어 보다'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④ '놀려 대다'의 '대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15) ④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이다. 보다 쉬운 개념으로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때 주로 활용된다. '세월호 평형수'는 유추의 대상이라기보다 공통점이 있는 비교 대상이고, 글에는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해설]

① 필로티 건축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는 무리하게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법정 주차대수, 주택공급 정책 등이 필로티 건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③ 세월호 사건, 저렴 주택, 저렴 도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④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중세국어]

ㄱ. 중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ㅀ, ㄷ, ㄴ, ㅂ, ㅍ, ㅅ, ㄴ'의 8자만 쓰였다. (O)

- 8종성가족용(八終聲可足用法): 여덟 글자만으로도 받침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ㄷ.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O)

-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종성의 제자 원리(制字原理).

>> 17세기에 8종성이 7종성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대세는 8종성가족용

원칙을 지키는 쪽이었다. <<언문철자법>>에서 이야기하는 종래의 철자법은 8종성법이다. '중성부용초성'은 훈민정음 중성 제자원리, 8종성법이 중세의 주된 중성표기법이다.

ㄱ.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O)

- 순경음(脣輕音): 순음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ㄹ', 'ㄴ', 'ㅇ', 'ㅇ' 따위

[오답해설]

ㄴ. 사잇소리에는 'ㅅ'과 'ㅈ'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X)

- 중세에 사잇소리는 'ㅅ, ㅈ'뿐만 아니라, 'ㄱ, ㄷ, ㄹ, ㅂ, ㅍ, ㅊ' 등도 쓰였다.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X)

-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세조 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헌인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훈민정음 언해>>•<<월인석보>> 등에만 보이며, 성종대에 와서는 실제 국어 한자음을 썼다.

17) ①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가)에는 '임'이 물에 빠지기 전부터 임이 빠진 뒤 슬퍼하는 내용까지 드러나 있다. (나) 역시 '흔든 가지(한 가지=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누이가 죽고, 누이를 그리워한 뒤, 陀刹(미타찰=극락)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시간의 경과가 드러난다.

지문: (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나) 제망매가(祭亡妹歌)

[오답해설]

② 임(사모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가)에만 해당된다. (나)는 죽은 누이와의 사별을 노래하였다.

③ (나)는 사별의 슬픔을 종교적(불교적) 승화하였지만 (가)는 슬픔과 절망만 드러나 있다.

④ (가)는 '이제 님을 어이 할까나'라며 슬픔과 절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나) 역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기 전까지 누이를 잃은 슬픔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18) ② [한자 - 한자어의 표기 + 동음이의어]

- 過程(과정): 過 지날 과, 程 한도 정/길 정

: 일이 되어 가는 경로.

- 纏足(전족): 纏(엮을 전) 足(발 족, 지나칠 주).

: 중국의 옛 풍습의 하나. 여자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들을 어릴 때부터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 넣듯 묶어 형상으로 동여매어 자라지 못하게 한 일이나 그런 발을 이른다.

- 歪曲(왜곡): 歪(기울 왜) 曲(굽을 곡)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枯死(고사): 枯(마를 고) 死(죽을 사)

: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음. '말라 죽음'으로 순화.

[오답해설]

- 課程(과정): 課 공부할 과, 程 한도 정/길 정

: '1' 해야 할 일의 정도, '2' 『교육』 일정한 기간에 교육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과목의 내용과 분량, '3' 『교육』 대학에서, 일정한 분야의 교수·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절차.

- 填足(전족): 填(메울 전, 진정할 진) 足(발 족, 지나칠 주)

: 모자라는 것을 채움.

왜곡(矮曲): '왜곡하다⁰²'의 어근. 아주 불품없이 작달막하고 굽다.

19) ② [어휘 - 고유어]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또는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

[오답해설]

①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 서풍

③ 트레마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

④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20) ③ [이론 문법 - 통사론 - 어미]

'-거든'은 '어떤 일이 사실이면'을 조건으로 삼고 명령형을 쓸 수 있다.

예) 그분을 만나거든 꼭 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세요.

길이 미끄럽거든 지하철을 이용해라.

[오답해설]

①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예) 집을 마련하려고 저축을 한다.

> 너가 집을 마련하고 싶다 + 너가 저축을 한다.

② '-더라도'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을 수 있다고 사전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겠더라도'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막상 가서 보면 못하겠더라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이 시는 누가 읽겠더라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의 경우 '읽더라도'로 써야 한다<온라인 가나다 2017년 8월 답변 참고>

따라서, '-겠-'과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으)ㄴ들'은 '어떤 조건을 양보해도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부정을 위한 수사 의문문인 것이 적절하다. '~(으)ㄴ들 ~ 못 할까?'